

# 코로나 19 재 유행 ... '집단감염' 비상 '해외유입 확진자' 까지 두자릿 수

해외 입국자 격리 속 중국 베이징 등 재유행 주시  
단기체류 외국인 늘어...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한 풀 꺾인 줄 알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2차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방역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인접국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가뜰이나 한계 상황이다. 다다른 국내 방역에 해외유입 차단까지 방역당국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해외유입 신규확진자는 112명에 이른다.

문제는 최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계속 두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초 해외유입 신규확진자는 계속해서 한자릿 수를 기록했고, 14일에는 3명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나 지난 15일부터 서울 연속 두자릿 수 확진자를 기록하며 해외유입 절대적 수치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인접국들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국 베이징의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16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44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 수도 베이징에서만 3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베이징은 지난 11일 이후 누적 감염자 수만 137명으로 2월 초 이후 최대 수치다.

중국 뿐만이 아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인도 등 아시아발 국내유입 확진자도 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8명 중 중국 외 아시아 지역 감염경로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방역당국은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한 연쇄 감염 위험은 낮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수도권 병상이 가득



평택시 선별 진료소에서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에 더해 해외유입 확진자까지 늘어난다면, 방역당국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외유입 신규확진자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287명)이며, 다음은 경기도(2017명)다. 세번째로 많은 곳은 51명을 기록한 인천이다.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병상은 현재 969개가 남아있는데 이중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도권 남은 치료 병상은 47개에 불과하다.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2차 팬데믹(대유행)을 감안해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88명이던 단기체류 외국인은 6월에는 180여명까지 늘었다.

물론, 해외유입 신규확진자와 외국인 체류 증가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해외유입 신규확진자 중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일정 부분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늘어날수록 해외유입 신규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정부가 임시생활시설 7곳을 운영, 2주간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 “왜 약속 시간 늦어” 후배 따귀 때린 20대 조폭

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의 한 피시방에서 동네 후배 B씨(20)의 얼굴을 7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다른 혐의로 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B씨는 A씨의 보복 등을 우려,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관계 거부 22살 베트남 아내 폭행 50대 벌금형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타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1시쯤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A씨(34·베트남 국적)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턱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의 폭행으로 A씨는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얼굴)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입었다.

진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수업 차 제주 찾은 대학생 오토바이 사고로 숨져

제주도 대학 수업을 들으러 온 20대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17일 제주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56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펜션 앞 도로에서 A씨(20)가 몰던 오토바이가 가로수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인천 출신인 A씨는 대학 현장수업 차 제주를 찾아 오토바이를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주변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무면허 10대 몰던 승용차 신호등 받아 4명 부상

10대가 무면허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다. 17일 오전 1시10개 전북 군산시 내운동의 한 도로에서 A씨(19)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3명 등 모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이 30여분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동승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마을 정자서 불... 주차돼 있던 SUV 불에 타

16일 오후 3시 34분께 충남 청양군 묵면의 한 정자에서 불이 났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발생 13분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정자와 옆에 주차돼 있던 SUV 차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꽂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황제 노역’ 허재호 전 대주 회장, 조세포탈 재판 불출석

코로나로 귀국 어려워...8월 재판 출석할 수 있게 준비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8)의 수역원대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허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항 사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판절차와 관련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뉴질랜드 직항 노선 운항이 중단된 데다가 제3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이 있지만 실제 운항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귀국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7월 중에 입국이 가능해지면 자가격리 2주를 거쳐 8월19일에 예정된 공판기일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의견서는 받았다”며 “피고인의 출석 준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등을 사전

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11월쯤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 36만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6만원을 포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회장이 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재판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허 전 회장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허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해 10월 열렸고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재판에 출석하



지 않았다. 다만 심장질환 때문에 한국의 겨울이 지나고 난 뒤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신봉우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